

墨子思想에 對한 一考察 (一)

二千年前 中國의 空想的 社會主義者

安炳珠

一, 緒論

지금까지도 孔孟을 崇尚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孔孟보다도 墨子思想에 興味를 가졌다. 中國의 新文學 大家 胡適이도 墨子에 대하여 縱說橫說이 만치만, 梁啓超도 墨子연구의 著書가 만다. 胡適의 墨子에 關한 研究는 主로 論理的 方面에서 卓越하지만, 梁啓超의 墨子에 對한 學究는 全般的 方面에서 優秀한 것 같다. 何如間 墨子思想을 探求하자면 胡梁二家の 著書에 依하여 어들 바가 만다. 墨子는 二千年前 中國이 나흔 空想的 社會主義者이엿섯다. 二千年前에 그런 思想을 가져섯다는 것은 偉大한 先覺이라 할만하다. 一見에도 그의 思想은 孔孟보다 勝함에도 不拘하고 儒學에게 外를 當하여 後世에 傳承치 못하게 된 것은 中國哲學思想의 痛嘆事라 하지 안할 수 업다. 그런데 墨子思想의 大要를 述하는 데 잇서서는 爲先 墨子の 出身地와 年代를 明할 必要가 잇스나, 그것은 孔老보다도 一層 不明瞭하여 異說이 만다. 그것을 考證하는데 만도 相當한 紙를 虛費하지 안하면 안되므로 여기서는 略하고, 大體로 墨適은 孔子와 가티 魯人으로서 周의 定王 元年에서부터 十年에 이르기까지에 出生하였다가 周의 安王 十二年부터 二十年에 이르는 동안에 歿하였다고 觀測된다(梁啓超의 『墨子학안』, 胡適의 『中國哲學개론』 參照).

於是乎 墨子學說의 發生된 社會的 根據를 探究치 안하면 안되겟다. 墨敎가 생겨난 原因에 對하여 梁啓超는 大凡 八個의 理由를 列舉하였지만, 그것은 大體로 墨子가 나타난 時代를 政治上으로 封建的 階級政治가 窮狀에 빠지고 社會相으로는 貧富의 懸隔이 漸漸 激烈할 뿐 아니라, 思想上으로는 儒敎가 種種의 弊害을 成하여 禮文主義와 가튼 것은 한갓 末的 形式만에 追하고 잇섯스며, 그 때문에 上流社會는 더욱 利己的 風이 增大하고 下流社會는 富의 威脅을 느기고 잇섯다. 墨子는 이러한 時機에 크게 不滿을 가지고 一大 改革을 企圖하던 偉大한 思想家이나, 그때의 그 思想은 空想的 社會主義임을 明할 수는 업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墨子は 傳習的 慣行禮儀 또는 道德律을 各 人類의 相互關係 及 各行爲를 規律하는 完全한 典章組織 事業에 沒頭하는 儒者의 文縟禮主義에 不滿을 느끼었다. 由來高遠한 宗教的 觀念을 가지고 그의 祖先崇拜의 古制度에 法하여 所謂 久喪厚葬을 執하는 儒家를 忌하였다. 또 生死는 宿命이오 富貴天命이란 儒敎의 定命論을 認定치 安하였다. 要컨대 信仰理論 及 制度의 實際的 結果를 思考치 않는 儒敎의 功利主義에 反對한 것이다. 大體로 墨子의 思想體系는 功利說과 實論에 非難한 바가 많다. 그리하여 墨子는 哲學을 超越한 宗教이면서도 또한 宿命論을 非難하여 人間의 幸福은 善行에 比例한다고 보아, 賞罰의 權威를 가진 新鬼의 存在를 信仰하며 天의 根本敎義는 兼受에 있다고 한다. 그 愛他主義의 原은 關係의 親疎에 따라 愛에 區別을 두는 宗旨인 儒家의 非難을 맞게 된 것이다.

또 墨敎의 特徵의 하나는 禁慾主義에 있다. 粗衣, 粗食과 克己節制로 賞의 禮를 하고 時生活에 自甘하는 것이다. 그리고 墨子는 兼愛의 敎理를 出發點으로 한만치 非論을 主張하였다.